

4대강 논의위 날치기 예산 통과에 “허탈”

“민주주의 제대로 할 때까지 지속 행동”

정부·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 하자 4대강 갈등의 중재안 마련에 부심했던 4대강논의위원회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도법 스님(불교)·조성천 교무(원불교)·김대선 교무(대참)·이훈삼 목사(개신교) 등 4대강논의위원회의 종교

단체 대표들은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날치기 예산 통과가 없었다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4대강 중재안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종교단체 대표들은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외면하는 정부·여당을 슬퍼한다’ 제하의 성명서에서 “한나라

당 원외총장 사무총장의 “예산안을 단독 처리 하는 일이 없다. 4대강논의위원회가 협상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던 장담이 있었음에도 정부·여당의 소동부재로 예산안 통과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종교단체 대표들은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면서 국민에게 사회통합을 외면할 경우 단호히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독선적이고 오만한 정부·

여당이 무례를 참회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때까지 냉정하고 지속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예산안 통과로 4대강 논의위원회 활동은 중지된 상태”라면서도 “국민적 논의의 취지를 무색케 한 정부·여당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조기룡의 사찰경영학 ⑨

포교는 만인을 이롭게 하는 것

우리는 지하철, 거리, 역 대합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공질서나 공중예절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매우 시끄럽게 전도하는 개신교 전도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예수천국, 불신지옥”만을 큰소리로 외치고 다닐 뿐이다. 필자가 지하철에서 이런 상황을 종종 접한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기독교 전도자들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얌만하고 막무가내로 활동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 생각 한편에는 불교계가 포교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어린 생각도 더불어 공존한다. 물론 개신교의 무례한 전도가 본받아야 할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포교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불교의 현실에 이와 같이 모순될 수도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불자가 포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께서 부촉(附屬)하신 전도를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자들이! 자, 이제 길을 떠나거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人天)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제자들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진리·가르침]을 전하라. 또한 원만 무결하고 청정한 범행(梵行)을 살하라.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더러움이 적은 이도 있거니와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들으면 법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제자들이! 나도 또한 법을 살하기 위하여 우무벨라의 세나니가마로 가리라.”(잡아함경) 권39, ‘승삭경(繩索經)’

이는 유명한 전도부촉이다. 부처님이 다섯 비구에게 최초의 포교인 초전법륜을 설한 후 제자가 60명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포교를 분부하고 부탁하신[부촉(附屬)] 것이다.

물론 부처님이 전도를 부촉하심이 기독교에서 하듯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부르짖는 저급한 행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전도는 당연히 무례하지 않은 여법(如法)한 포교이다. 우리가 포교를 여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의미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한다.

포교란 무엇인가, 포교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자. 포교(布教)의 ‘포(布)’는 고대에 화폐를 대신해 사용했던 베로 일종의 통화였다. 베는 널리 유통되고 움직이는 것이므로 제한이 없이 두루 쓰이는 사물이었다. 그러므로 포교란 통화가 널리 유통돼 만인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널리 불법(佛法)을 유통시켜 세상사람 모두를 이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불법을 사회에 널리 펼쳐서 중생이 불법에 인연

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불법을 따르고 지

켜서 모두가 이롭고 윤택한 불국정토를 일구는 것이다.

포교는 부처님의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는 불법전수와 불교교단 유지의 근간이 되는 행위이다. 초전법륜이란 부처님께서 성도 직후 녹야원에서 교진어 등 다섯 비구에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처음으로 설법한 일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길 주저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 심오하고 난해해 일반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다. 이에 부처님은 이 진리를 누구에게 설할 것인가를 생각한 끝에 처음 출가했을 때 스승이었던 카라마와 라마푸트라를 떠올렸으나 이미 죽은 뒤였다. 그래서 함께 고행했던 다섯 사람을 생각해 내고 그들이 있는 녹야원으로 찾아가 첫 설법을 행했다.

“고행과 쾌락의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전법륜경(轉法輪經)〉에 의하면 부처님의 첫 설법은 이렇게 시작됐다. 중도에 이어 해탈에 이르는 네 가지 진리의 사성제와 괴로움을 소멸하는 여덟 가지 수행방법인 팔정도

가 설해졌다. 부처님이 이

와 같이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자 땅의 신들이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가장 훌륭한 법륜을 굴리셨다. 이것은 사문·바라문·천신·악마·범천 등 세상의 어떤 누구도 굴리지 못한 것이다”라고 소리쳤다. 이것이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최초로 설한 가르침의 상황이다.

이로부터 부처님의 포교 생활은 49년 동안 지속됐고 그동안 아난다 등 10대 제자를 비롯한 수천의 비구·비구니와 범비사라 등 여러 국왕과 그 밖에 무수한 선남선녀들이 불제자가 되어 인류역사상 중요한 대중교로서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

초전법륜에서 보듯이 흔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륜에 비유한다. 법륜은 진리의 수레바퀴라는 뜻이며, 전법륜(轉法輪)이란 옛적 인도에서 전투할 때 쓰던 전차(戰車)의 바퀴가 굴러가서 적을 무찌르듯이 법을 설해 인간 고뇌의 원인 번뇌를 부순다는 뜻이다. 만약 부처님이 법륜을 굴리지 않았다면, 세상은 여전히 질척 같은 무명에서 빠져 휘청거리고 있을 것이다. 아직도 탐욕·성냄·어리석음이 중생에게 가득하지만, 그래도 중도,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에 의해 광명도 도달하는 길이 열려 있기에 희망이 있다. 부처님이 법륜을 굴림으로써 중생이 구제되고 세상은 인간자존(人間自尊)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포교는 왜 해야만 하는가, 포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포교란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널리 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포교를 함에 있어 그 목적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올바른 포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4대강 찬성 국회의원 “2명”

반대 96명, 무응답 200명

4대 중단 연대회의와 운하반대전국 교수모임 자체 조사 결과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2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와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298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4대강 사업의 찬·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찬성 응답은 한나라당의 나성민, 이주영 의원뿐이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96명, 무응답

은 200명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 등 사회원로들과 불교4대강사업 저지 특별대책위원회 지관 스님, 실전승교회 대표 퇴후 스님, 4대강 사업 저지 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 서상진 신부, 기독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양재성 목사 등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 이상돈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선 4일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종교계, 야당,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예산 삭감을 위해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박기범 기자

템플스테이 예산 얼마나 깎였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2011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템플스테이 예산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185억원에서 62억5000만원이

삭감된 122억5000만원이다. 122억5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반영액(109억5000만원)과 여수 엑스포 지역사찰 지원액 13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조동섭 기자**



조동섭 기자에 따르면 12월 9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에는 정부·여당 관계자의 사찰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박희태, 정의화 의원을 불차 7적으로 규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연동회는 “안상수·정병국 의원은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된 8일 예결위 회의에 참석했다”고 폭로했다. 이들 의원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템플스테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함구한 것

으로 알려졌다.

연동회는 “안상수, 정병국 의원은 1700년 맥을 이어온 전통 불교를 우롱한 장본인”이라며 “2천만 불자에게 걸워 회의에 참석했다”고 폭로했다. 이들 의원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템플스테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함구한 것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한나라 “실수다” 민주당 “석고대죄하라”

민주당 연동회, 안상수·이재오·정병국 등 불차 7적 지목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등 날치기 예산 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실수였다”고 해명을,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불교를 우롱했다”며 공방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월 1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중립적으로 추진했던 예산 중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도된 것은 야당의 지연작전 속에서 국가예산을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생긴 실수”라고 밝혔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등의 증액은 당에서 약속한 것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서갑원(전남 순천)·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여수 엑스포와 영암F1 그랑프리 예산에 집중하면서 템플스테이 예산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당직자의 해명과 달리 F1 예산도 4대강 사업 예산에 밀려 100억원 가량 삭감됐다.

같은 날, 민주당 연동회(회장 최문순)는 성명서를 통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2천만 불자들에게 템플스테이 예산을 약속했던 안상수, 정병국, 김무성 의원과 새해 날치기 예산안 통과와 주범인 이주영, 이재오,

스님이 만든 생식

곡류 50%를 받아서 만든 효소발아생식

- 1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되었습니다.
- 2 유기농으로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 3 99% 국내산 제품입니다.
- 4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이 아닌 중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보심 깊은 불자님 지역총판 모집합니다. 070-7629-5920

*일 1개 (110g) x 60개 (2개월분) **100,000원**

황금영구위패는? ※ 디자인특허 ※

◆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하여 제작한 황금위패로 영가위패단의 품격과 신도는 조상에 대한 숭모의 뜻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치전경 >

<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작업 조각 >

흑옥위패단은? ※ 디자인특허 ※

◆ 자연석 고급석재로 제작하여 영단의 안정감과 품격을 높여줍니다.
 ◆ 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신도가 위패제작에 동참할 것입니다.
 ◆ 뒷면에 고유번호와 가족이름을 넣을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 좁은 공간에 많은 봉안영구위패를 장엄 할 수 있는 맞춤형 흑옥위패 단입니다.
 ◆ 사찰비용없이 영단 설치와 어려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뒷면 >

영가의 문구는 각 사찰의 요구대로 제작합니다

< 종이영단 모습 >

< 흑옥 영단 >

※ 전국 어디든 각 지역 사업부에서 샘플과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

흑옥 제사용 위패는? ※ 디자인특허 ※

◆ 제사 때나 명절에 지방위패에 조상님의 사진과 함께 제작한 지방으로 제사를 모시면 생전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이며, 지방을 쓰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흑옥(黑玉)과 흑단 나무를 부착하여 제작하였기에 영구적으로 보존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시 사진은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제작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흑옥(黑玉) >

< 흑단 나무 >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와 함께 드립니다.

상담전화: 02)966-9650

(주)대양아트 FAX: (02) 921-9650

본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e-mail: dyart@daum.net